



(출처 평창문화관광)

맑고 청아한 전나무 숲길...  
 ‘바른 마음(正心)’을 보다

[사찰순례]  
 평창 전나무 숲길과 월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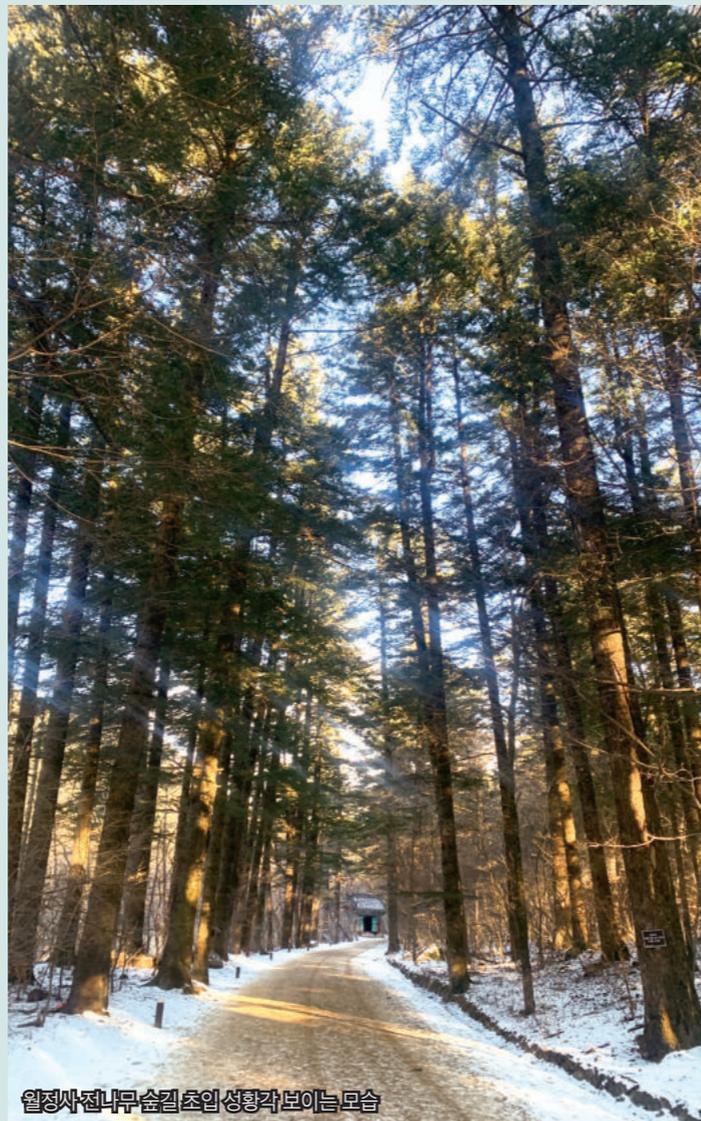
동욱 | 작가

달의 정기를 받은 곳. 월정대가람 현판을 단 일주문에서 시작되는 숲길. 차가운 바람이 맨살에 닿을 때도 운치가 있다. 높이가 30미터 정도 되는 1천 700그루의 전나무가 뿜어내는 기운은 맑고도 청아하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토속 신앙을 품은 성황당도 있고, 600년 세월의 무게를 끝내 견디지 못한 나무도 눈에 띈다.

눈 소식이 전해진 1월 초순 기대를 안고 월정사를 찾았다. 눈 덮인 오대산과 전나무 숲길, 월정사 경내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눈길을 뚫고 찾아가기가 만만치 않아 순백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려면 때와 인연이 잘 맞아야 한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며칠 전 내린 눈은 대부분 녹았고 숲길 곳곳의 잔설만 보게 돼 살짝 아쉬웠다. 조금 더 서둘렀으면 인간과 도깨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처럼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전나무 숲길을 걸어 볼 수 있었을까?

평창문화관광 사이트에 올라온 '설국'의 전나무 숲길 사진으로 마음을 달래며 금강문을 지나 월정사 경내로 들어섰다. 순례자를 먼저 맞이하는 건 우뚝 솟은 석탑과 조각상이다. 국보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역시 국보로 지정된 석조보살좌상이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유명하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하다.



월정사전나무 숲길 월정대기암 일주문정면

월정사전나무 숲길 초입 성황각 보이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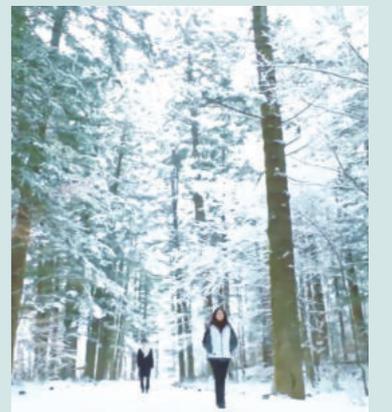
눈 덮인 월정사 전나무 숲길 (출처 평창문화관광)

‘높이 15.2미터로 우리나라 팔각석탑으로는 가장 크다. 연꽃 무늬로 치장한 이층기단과 균등하고 우아한 조형미를 갖춘 탑신, 완벽한 형태의 금동 장식으로 장엄한 상륜부, 각 층마다 달려있는 청동으로 만든 80개의 풍경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이라고 월정사는 소개한다.

1970년 해체 복원할 때 은빛 불상 1점과 진신사리경을 포함해 12점의 사리구가 나왔다. 부처님의 몸이나 다름없는 사리가 봉안됐으니 팔각구층석탑은 그 자체로 석가세존을 상징한다. 그런데 순례자의 시선은 오히려 석탑 앞에 있는 보살상에 더 많이 머무른다. 누구이기에 한쪽 무릎을 꿇고 석탑을 향해 공손하게 예를 올리고 있을까? 가지런히 모은 두 손에는 향을 들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도 보인다.

신라 자장율사 이래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1만의 권속을 거느리고 항상 설법하는 성지’로 자리 잡았으니 보살상은 문

부처님의 몸이나 다름없는 사리가 봉안됐으니 팔각구층석탑은 그 자체로 석가세존을 상징한다



출처 tvN드라마 도깨비 뮤직비디오



월정사 전나무 숲길 성황각 외경

수보살일 거라는 짐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데 문수보살 정도의 권위라면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서 보좌하는 모습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게다가 월정사에서 버스로 15분가량 걸리는 상원사에는 국보 문수동자상을 모신 문수전이 훌륭하게 차려져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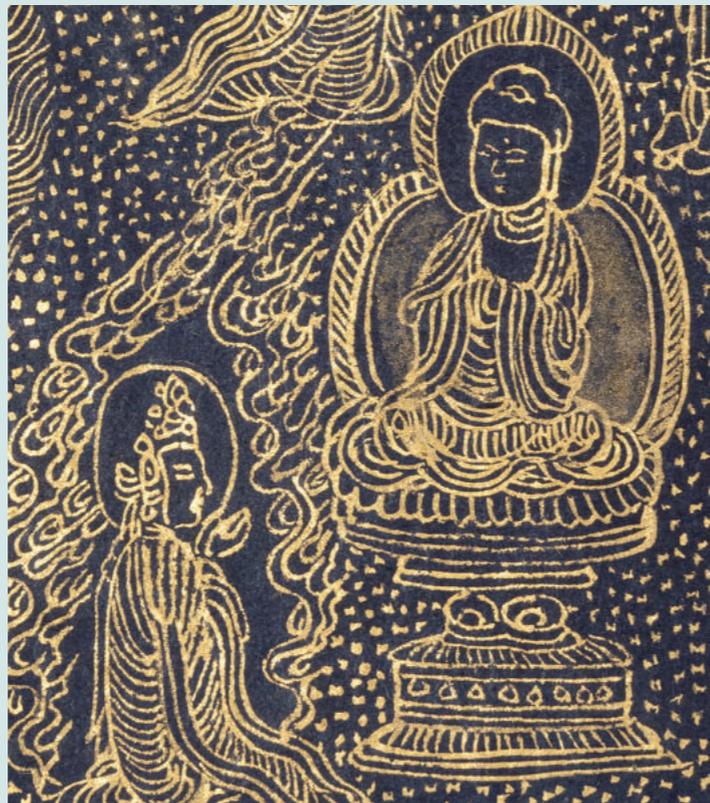
이런 저런 궁금증에 자료를 더 찾다가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사경 묘법연화경 변상도를 보고는 아하! 하고 느낌이 왔다. 불교 진리를 설법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왼쪽 아래를 보면 ‘불타는 화염 속에 자신의 몸을 바쳐 공양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온다. 『묘법연화경』 제23품인 「약왕보살 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을 묘사한 그림이다.

약왕보살. 전생은 희견보살이었다. 희견보살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게 되자 기쁜 마음에 갖가지 공양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불

태워 바치는 공양까지 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받아 환생하게 되자, 이번엔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해 팔만 사천 개 사리탑을 세우고 보배로 장식했다. 또 탑 앞에서 7만 2천 년 동안 공양을 이어갔는데 이분이 바로 약왕보살이다.

“병의 근원을 제거해 중생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결국에는 성불의 길로 인도하고자 원(願)을 세우신 분이 약왕보살(藥王菩薩)이다. 일광 또는 월광보살이 모든 재난을 제거하는 보살이라면 약왕보살은 그 외연이 좀 더 구체화 돼 병에 대한 처방과 치료약을 제공하는 으뜸가는 보살로 인식되었다. 또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몸을 남김없이 태움으로써 부처님께 바치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의 정신을 보여준다.”

<김광호, 「월정사 약왕보살상 연구」 중앙승가대 석사논문, 2013, p.15>



고려 사경 묘법연화경 변상도 중 약왕보살 소신공양장면 (출처 문화재청)



월정사 적광전 앞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

그런데 월정사 경내에 있는 석조보살좌상은 진품은 아니다. 세월과 비바람에 훼손될 게 걱정돼 모조품으로 석탑 앞에 조성했다. 높이 1.8미터의 국보 석조보살좌상 진품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의 독립공간에 잘 보존돼 있다. 약왕보살의 이야기로 흥미로운 오대산과 월정사. 한국 불교의 큰 어른이 우리 불교의 초석을 다진 요람이기도 하다. 한암 대종사(1876~1951).

1925년 을축대홍수때 한암스님은 서울 봉은사 주지인 청호스님과 함께 한강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운 수재민 708명을 구조해 먹이고 재웠다. 이 일로 ‘활불活佛’이라는 찬사도 듣게 됐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자 한암스님은 “내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배우지 않겠다.(寧爲千古藏蹤鶴, 不學三春巧語鸚)”는 시를 남기고 오대산으로 들어간다.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를 오가며 27년간 청정한 수행과 가르침으로 ‘성자(聖者)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한암스님.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제안해 우리 불교의 새로운 탄생을 알렸는데,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찾아온 일제 오노 정무총감에게 일갈한 사연은 큰 울림을 준다.

‘이번 전쟁은 누가 이기겠느냐?’고 오노가 직설적으로 묻자 ‘덕 있는 사람이 이긴다(德者勝)’는 명답을 내놓았다. 평생 지침이 되는 법문을 요청하자 ‘바른 마음을 가져라’는 정심(正心) 두 글자를 써 주었다.’ <정무총감 오노와의 대화, 「한암일발록」 월정사 홈페이지>

맑은 기운의 전나무 숲길과 약왕보살의 살신성인, 그리고 한암 큰스님의 가르침인 ‘바른 마음(正心)’까지... 오대산과 월정사에는 그윽한 향기와 품격이 살아 숨 쉬고 있다. 🇰🇷



한암스님과 상원사 젊은 스님들 (1928년 전후)

월정사 성보박물관 한암스님과 젊은 스님들



## 평창 월정사로 향하는 길 -길 위에서 만난 평온, 그 보이지 않는 헌신-

도로교통 저널 편집부

우리는 매일 길 위에 서지만, 정작 길의 존재를 잊고 산다. 마치 공기가 없으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으면서도 그 고마움을 매번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도로는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뻗어 우리를 세상 밖으로 안내한다. 이번 '사찰로 이어지는 길'의 목적지는 겨울의 서정이 가장 깊게 내려앉은 곳, 평창 월정사다. 그리고 이 글은 그곳에 닿기까지 우리를 품어준 도로에 대한 작은 고백이자 감사의 기록이다.

서울을 떠나 영동고속도로에 오르면 차창 밖 풍경은 시시각각 변한다. 회색빛 빌딩 숲은 어느새 첩첩산중의 웅장한 설경으로 바뀌고, 진부IC를 빠져나와 456번 지방도로 접어들면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하다. 우리가 이 험준한 강원도의 산길을 미끄러짐 없이, 두려움 없이 달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겨우내 평창의 도로를 지키기 위해 7,000톤의 제설제와 싸우며 밤새 길을 트는 지역의 공무원들의 거친 땀방울이 아스팔트 아래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도로는 가장 안전한 여행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치유의 공간으로 이끈다.

일주문을 지나 마주한 월정사 전나무 숲길. 1,700여 그루의 전나무가 만든 초록의 터널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한다.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달려온 발이 부드러운 황토 흙길에 닿는 순간, 긴장은 이완으로 바뀌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든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차가운 대지의 기운을 느끼는 '어싱(Earthing)'은 이 길의 백미다. 흙의 감촉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도로는 단순히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 아니다. 꽉 막힌 일상을 뚫고 나와 전나무 숲의 청량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통로이자, 낯선 곳의 아름다움과 나를 연결해 주는 가장 든든한 벗이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도, 등산이 낯선 여행자도 모두 이 길 덕분에 평창의 겨울을 만끽한다. 오늘, 월정사로 향하는 길 위에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토록 편안하게 떠날 수 있음은,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 덕분임을. 그래서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뻗어 있는 따뜻한 손길과도 같다. 🇰🇷

